

박영희 연구 —사상전향을 중심으로—

노 상 래

〈차 례〉

- | | |
|---|--|
| 1. 들어 가면서
2. 전향의 의미와 회월의
내력 찾기
3. 신이상주의자의 희생양 되기 | 4. 관념에서 삶으로 돌아 오기
5. 착한 아들 되기와 친일 하기
6. 속죄양 되기와 분학사 기술
—결론을 대신하여— |
|---|--|

1. 들어 가면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와 〈어떻게 사느냐〉의 두 가지 명제는 회월의 결을 늘 쫓아 다녔다. 제2차 카프사건으로 검거된 후 그가 감옥에서 느낀 것은 자기의 삶에 대한 애착이었다. 「독방」의 윤리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 조선을 위해 현실의 제물이 되기를 원했으며 그 〈희생양 되기〉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와 동일선상에 위치한 일종의 운명같은 것이었다.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예술 자신’이라고 말하면서까지 거리를 두고자 했던 카프는 그에게는 삶 자체였지만 그것이 때로는 그에게 엄청난 시련의 굴레가 되기도 하였다. 제1차 카프사건 후의 회월에게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절실했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현실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될 이유’¹⁾ 때문에 선택했던 민족주의적 사회주의²⁾도 스

1) 박영희, 「숙명과 현실」, (《개벽》 1926. 2월호), p. 85

스럼 없이 내던진채 천일의 길을 걸어야 했던 회월의 정신적 상흔 속에는 <어떻게 사느냐>, 즉 현실을 어떻게 살아 목숨을 부지해 가느냐 하는 인간 본래의 생애 대한 집착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 천일은 살기 위한 한 방편이었으며 그 치욕에 대한 <속죄양의 피>를 대신하여 나온 것이 「현대조선문학사」이고 보면 결과적으로 회월은 시대를 지배했다기 보다는 시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배회하던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38년 6월 20~22일에 걸쳐 동경에서 개최된 <시국대응전국위원회>, 일명 <전향자대회>에 한국인 대표로 참석한 그는 <芳村香道>라는 창씨개명을 남보다 한 발 앞서 할 만큼 앞서 살다 간 문학가이며 지성인이었지만 그 앞섬으로 인해 남보다 앞선 그것 만큼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임화의 ‘아비’²⁾였던 회월의 정신사적 궤적을 추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아픈 지성사를 들춰내 보이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정신사가 국가 단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그것의 긍·부정적 평가를 차치하고서라도 객관적 판단의 근거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월은 해방 전 한국문학을 대표하던 공인 중의 한 사람이었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문학단체의 핵심적 지도이론가였던 점과 아울러 기독교와 그 대극의 입장에 위치한 사회주의, 그 둘의 특이한 사상 속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애쓴 그 특이성 때문에 연구자의 관심의 대상이 됨은 마땅하다.

이 글은 우선 그가 살다 간 삶의 흔적과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지니고 살았거나 새로운 삶을 위해 선택한 사상의 흔적들을 추적하여 한국문학사의 사상적 측면의 한 모퉁이를 추적하는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 그리고 카프를 결성할 때 가졌던 그의 사상을 고찰함으로써 회월의 상

2)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라고 말한 이유는 회월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는 그 어떤 주의보다도 우선하는 것이었으며, 사회주의는 민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김윤식, 『임화연구』(문학과사상사, 1989) 참조

당한 영향력 아래에 있던 카프라는 단체의 결성 당시의 성격을 밝혀 보고자 한다. 또한 전향문학⁴⁾의 동기가 된 전향 선언문을 통해 전향의 이유를 살핌으로써 회월 전향의 의미를 규명하게 될 것이며, 〈속죄양 되기〉⁵⁾의 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현대조선문학사」가 가지는 고백적 의미의 진의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회월의 이런 정신사적 흔적을 더듬어 봄으로써 고난의 역사기를 통해 때로는 그 고난을 수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며 살다 간 지성인들의 지성사의 한 모형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난의 시대에 한 때의 고난을 온 몸으로 체험하며 살다 간 회월이라는 한 개인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다. 동시에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한 때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던 회월의 그 모습은 역사적 교훈으로 한국인에게는 또한 소중한 것인지도 모른다.

2. 전향의 의미와 회월의 내력 찾기

전향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는 자의성이 강한 반면 후자는 타의적이다. ‘자기 성장에 의한 사상의 굴절’은 전자에 속하며, ‘권력에 의해 강제되어 일어나는 사상의 변화’는 후자에 속한다.⁶⁾ 이러한 전향은 어느 시대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 카프 해산과 관련한 전향, 친일 행위를 위한 전향, 해방 후의 전향 등 크게 3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물론 개

4) 전향론은 백철, 임화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회월 등의 전향은 해방후의 문장파들—이태준, 이원조, 정지용 등—의 그것과는 또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5) 속죄양되기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광수의 「나의 고백」을 들 수 있으며, 「문학자의 자기 비판」(《인민예술》 2호, 1946. 2), 「조선문학의 지향」—문인좌담회속기록—(《예술》 3호), 「창작합평회」(《신문학》 1946. 6), 「문학자의 자기비판」(《우리문학》 1946.2) 등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들이다

6) 김윤식, 『박영희 연구』(열음사, 1989), p. 139

전향의 규정에 대한 것은 김윤식의 『한국근대문학사상사』(한길사),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일지사) 및 『박영희연구』를 참조할 것.

인의 자의적인 전향은 아주 섬세하여 그것을 밝혀 내기란 어렵지만 한 개인은 어떤 형태로건 사상적 변화를 일으키게 마련이다. 아울러 강제된 힘에 의한 사상적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내적 요소에 의한 것이건 외적 요소에 의한 것이건 그 둘 모두를 전향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서의 한국 지식인들의 전향은 그것이 강제된 힘에 의한 것일 경우 곧바로 친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특이함 때문에 일본인들의 전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일본인들이 전향을 하는 목적은 ‘사회 복귀와 충실한 일본국민으로의 부활’에 있다. 이 둘의 궁극적인 지향은 천황주의이며 전향한 모든 지식인은 천황의 충실한 신민이 되어 갔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는 분명 달랐다. 林房雄이 말한 ‘일본에 있어서의 전향자는 전향 후에 몇몇이 돌아갈 조국이 있었지만 조선인 전향자는 돌아갈 조국이 없다’⁷⁾는 말 속에서 암시하듯 조선의 지식인들이 행한 전향의 우선적 목적은 ‘사회 복귀’였다. 일본의 충실한 신민이 되는 일은 차후의 문제였다. 이 점은 박영희의 경우를 살펴 보면 분명해 진다..

박영희는 朴秉旭과 金昇日 사이에 태어난 외아들이었다. 위로 누나가 세명 있었으나 일찍 죽고 말았다. 무녀독남인 셈이다. 그의 처는 김봉업이었으나 그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으며 다음 글을 통해 회월의 기질 중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집을 방문하더라도 남자들이 있는 사랑방에 부인은 감히 와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부인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으므로 그의 집에서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일조차 없었다.⁸⁾

7) 林房雄, 「韓向に就いて」(《문학계》, 1941. 3), p. 13(김윤식, 위의 책, p.98 재인용)

8) 이어령, 『한국작가전기연구』(上), (동화출판공사), p. 156

「이봐 윤주규고 술 잘먹지?」

별안간 열도 당토 않는 소리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아무 소리를 하던 심심푸리가 되면 그만이었다

「뭐 대낮에 술얘기는……? 그야 가지고는 못가도 먹고가야 할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상을 보니 내가 도저히 당신을 따를 수가 없겠는데…… 허허허」

「허허허」

간수도 웃었다. 사실대로 「나는 술을 못먹소」하고 내가 대답했다면 그는 다시 두 말 하지 않고 창문을 닫고 갔을 것이다.⁹⁾

나는 금주가라¹⁰⁾

이 인용문에서 밝혀 주듯이 회월은 전통의 유교 사상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 사상을 그 자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교적인 완고함과 기독교적 개방성, 이 둘은 회월을 지탱시킨 두 힘이었으며 이 둘의 상충 관계에 의해 회월의 사상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남보다 먼저 받아 들이는 선구자적인 기질이 있었다. 이것을 회월의 <새 것 콤플렉스>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 사상적 뿌리는 기독교에서 찾을 수 있다. 회월은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결정에 대한 회월의 판단 근거가 전혀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회월은 7,8세 때부터 서당을 다니며 한문을 배웠으나 1912년에는 서당을 그만 두고 攻玉小學校에 입학, 1916년 3월에 졸업한다. 공옥소학교는 남대문 예배당 뜰안에 위치하고 있었다.¹¹⁾ 따라서 기독교 사상은 회월이

9) 박영희, 「동방」(《현대문학》 47호), p. 56

10) 박영희, 「고녀의 일야」(《삼천리문학》, 38, 41, p. 163

11) 김기진, 「카프문학파 회월의 인간」-증언적 자료로써, (홍정선 편, 『김팔봉문학전집』 II, 문학과 지성사, 1988), p. 163

칠들 무렵부터 지니게 된 정신 영역의 한 모퉁이었다.

회월은 중류층 정도의 경제 수준인 소시민적 환경에서 자라났다. 회월이 태어날 즈음 그의 부친은 毛物塵을 하였으며, 세살 때 그것을 정리하여 돈놀이를 하는 한편 파주 근방에 땅을 사서 소지주 노릇을 하였다. 어머니는 회월이 소학교를 입학할 즈음 기독교 신자가 되어 그의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했으며, 사망 당시에는 교회 전도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¹²⁾ 회월의 진취적이며 개방적인 성격은 어머니의 영향에 힘입은 바 크며 그 사상의 뿌리는 기독교에 있었음을 그는 「독방」에서 밝혀 놓고 있다.

회월의 부모가 행한 서로 다른 사회 활동은 곧바로 회월의 정신 영역에 이원 체계를 형성케 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인 고리대금업은 당시 손쉽게 부를 획득할 수 있던 하나의 방편이었음에 틀림없지만 성경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그 직업은 세리와 함께 민족의 원수로 지칭될 만큼 지탄의 대상이었다. 그러한 아버지의 직업관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삶의 철학으로 삼고 살아가던 어머니의 종교관, 이 둘이 상충하는 정신 세계의 공간에서 회월은 그의 삶을 회의하며 살아가야 했다.

이런 회월이 사색의 인간이 되어갔음은 당연한 일이다.

씨가 문단이 중에서 많지 않은 독서가인 까닭에 그의 문학에 있어서의 사상이 남보다 앞서기도 하고 또 급진하는 것은 면치 못할 사실로 볼 수 밖에 없다.(중략) 아무런 감수성이 빠른 씨는 지금에 이날에 무엇을 감수하는지 모른다.¹³⁾

조선문예운동에 잇서서 늘 새로운 개척지를 생각하였던 이 중에 회월 박영

12) 이어령, 앞의 글, pp. 150-151

13) 안석영, 「조선문인 인상기」(《백광》, 37. 5), p. 78

회씨를 이룰 수는 업슬 것이다(중략)

故도향은 「泗泚水」의 명창이요, 회월은 「리고렛토」의 명창이었다. 씨로 하여 새로운 문예인도 많이 나왔고, 현재는 두문불출 서재에 묻혀, 여기를 나오는 때, 문단에 새로운 선물을 가져올 듯하다.¹⁴⁾

「사고력에 확대받는 육체」

아모래도 푼푼치 못하신 선생의 풍채를 바라보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략) 소장학자로 우리의 자량이십니다. 철학의 회의를 가진 이는 그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혹은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압니까.(중략)

듣자하니 선생의 서재가 구경할 만 하다니요, 그리고 그 주인되시는 분은 밤낮 거기에 파묻혀 계시구요.

진실한 서재의 포로!¹⁵⁾

회월은 약은 듯 하면서도 「센치멘탈」하다.……영약하고도 순되고 똑똑하고도 남을 거절치 못한다. 그러나 되나 안되나 한 번 물결에 타면 一路直往 이 것이 후일에 남보다 나중 시대사유에 휩쓸려 갔으면서도 巨頭자리에 앉지 아니치 못할 소질이였다.¹⁶⁾

내가 처음 잡지를 읽게 된 것은 육당의 주간인 「붉은 저고리」라 제호를 붙인 리푸렛형의 주간잡지였다. 그때 나는 열네살 쯤 되었었다. 나는 어떤 동무의 집에서 「붉은 저고리」를 보고 곧 신문관으로 한달치의 대금을 부치고 「붉은 저고리」의 월정 독자가 된 것이다.¹⁷⁾

유물철학이나 소위 맑스의 자본론에 대하여는 거진 칠팔년의 세월을 허비하면서 나로서는 대개는 읽고 연구하여 본 것이다.¹⁸⁾

14) 안석주, 「두문불출의 회월 박영희씨」(《조선일보》, 1933. 1. 31)

15) 이선희, 「조선작가군상」(숙), (《조광》, 1936. 5월호), p. 175

16) 박종화, 『청태집』(영창서관, 1942), p. 165

17)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축면사」(1)(《현대문학》56호), p. 209

이상의 인용문들은 〈사유하는 회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회의의 골짜기를 독서를 통해 매꾸어 가던 회월이었음을 알 수 있다. 회월은 1928년경에 금박으로 된 천여권의 장서를 이미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남다른 독서 편력은 그를 사색인으로 만들었으며, 그 독서의 힘이 ‘남보다 나중 시대 사유에 휩쓸려 갔으면서도 巨頭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었다. ‘사고력의 학대받는 육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 ‘진실한 서재의 포로’가 되었던 회월은 ‘조선 문예에 잇서서 늘 새로운 개척지’를 생각하였던 것이다. 독서가인 회월은 자연스레 ‘사상이 남보다 먼저 앞서기도 하고 또 급전’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회월의 〈새로움 콤플렉스〉라 부르기로 한다. 이 〈새로움 콤플렉스〉는 때로 자신을 옭아매는 굴레가 되기도 하였다.

고리대금업자였던 아버지, 조선에 있어서 최신의 사상인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어머니, 그 속에서 세계를 휩쓸던 퇴폐주의와 사회주의에 빠져들었던 회월은 혼재하던 사상속에서 〈서재의 포로〉로 묶여 있으면서도 때 순간 새로운 불빛을 향해 날아 오르던 불나비같은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3. 신이상주의자 희생양되기

회월이 유미주의에 빠져들게 된 원인은 단순히 시대적 분위기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언가 미심쩍은 곳이 있다. 《백조》파로 지칭되던 문인들만이 유독 유미주의로 빠져 든 이유를 〈시대 분위기〉 탓으로 돌린다면 김동인, 이광수 등의 《창조》파 동인들과 염상섭 등 《폐허》파 동인들이 상대적으로 〈덜 유미주의적〉이었던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회월이 유미주의로 빠져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회월 자신에게서 찾아야 할 것

18) 박영희, 「독방」(《현대문학》50호), p. 205

이다.

그때에 나온 작가들은 대부분이 중산계급 이상의 생활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었다. 「창조」 동인들을 보더라도 춘원을 빼놓고는 다 생활의 여유를 가진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고, 따라서 동인 전부가 일본 유학생이기도 하였다. 아마 문예잡지 동인 중에 「창조」 동인들처럼 여유있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백조」 동인들을 보면 전부가 재산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貧難한 사람도 없었다.¹⁹⁾

회월이 유미주의로 빠져 들 수 있었던 근거는 ‘중산계급’이라는 경제적 지위 획득에 있다. 사실 《창조》 동인들이 ‘중산계급 이상’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었는데 비해 《백조》와 특히, 회월의 경우 ‘최소한의 중산계급’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산계급 이상’과 ‘최소한의 중산계급’이 가지는 미묘한 의미 차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회월이 유미주의에 빠져들 당시의 중산계급의 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48년 혁명의 특색은 소부르조아지가 대부르조아지와 지주계급과 쟁투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레타리아 농민계급의 威에 놀라서 프로레타리아를 배반하고 이탈해 간 점에 있다. 이리해서 소부르조아지의 형언할 수 없는 황혼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혹종의 관념과 이상의 보유자이던 것을 버리고 대부적으로 붕괴하고 자기불신으로 떨어져 갔다. 그래서 대부르조아지의 말류, 대부르조아지의 잔존자로서의 이 소부르조아지의 심정을 표현하려고 한 시인은 19세기말 소위 세기말의 컴컴한 기분을 표현하고서 자칭 대카단주의라고 명명했다.²⁰⁾

19)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측면사」(2)(《현대문학》58호), pp. 63-64

20) 루나찰스키, 「혁명과 예술」(김윤식, 『박영희연구』, p. 36 재인용)

《백조》파를 감염시켰던 데카단주의는 혁명에서 자기 자리 확보에 실패한 소부르조아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明治維新 이후 부르조아지 사회로 진입하고 있었던 일본과는 달리²¹⁾ 아직도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부르조아라는 용어 자체를 생산할 토대를 조성하고 있지 못하던 조선의 상황이 문제되기는 하지만, 당대 조선 사회만 국한시켜 본다면 회월은 소부르조아지 계층이었음에 틀림없다. 모물전을 경영하였고, 땅을 사 소작을 줄 정도의 지주였으며, 돈을 빌려 주고 그 이자를 받아 챙기던 아버지를 둔 회월은 분명히 소부로조아지에 그 삶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창조》파 동인들 가운데 춘원은 프로레타리아 계층에 속하던 인물이었고 그 나머지는 ‘중산계급 이상’이었던 점에 비해 〈소부르조아〉 계층이었던 즉, 더도 덜도 아닌 〈적당한 중산계층〉이었던 《백조》파가 창조파보다 유미주의에 빠져들기 쉬운 여건을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현실세계를 떠나서 아름다운 환영의 상징적인 세계를 창조하고 이 곳에서 고뇌와 우울을 잊고 끝없는 정서의 향락’²²⁾을 찾기 위해 회월이 빠져들었던 유미주의는 정신적인 만족을 주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서재의 포로’로 불릴 만큼 회월을 사색인으로 만들었던 독서는 회월의 굶주린 정신에 포만감을 줄 수는 없었다. ‘이군(이상화)과 나는 소위 데카단이즘 속으로 깊이를 모르게 빠져들어 갔다’²³⁾는 고백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독 회월은 특이함을 지니고 있었다. 이 특이함이 곧 그의 〈천성〉이었으며, 그것은 사회 분위기 탓으로 돌리기 이전의 〈숙명〉같은 것이었다. 회월 스스로 이 숙명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한 몸부림을 쳤으나 그 자신은 깊이도 알 수 없는 나락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했다. 깊이도 알 수 없는 나락

21) 이 부분에 대해서는 山田清三郎, 『プロレタリア文學史』上巻 제1, 2장을 참조할 것.

22) 박영희, 「현대한국문학사」(5), (《사상계》 64호, 통권 7권), p. 329

이하 《사상계》의 인용문은 통권을 기준한 것임.

23) 박영희, 「젊은 심볼리슴부대」, (《조선일보》, 1933. 9. 14)

속으로 추락하는 자의 두려움이 늘 <새로운 것>을 찾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물 속에 빠져 구사일생한 사람이 나중에 물 이야기만 들어도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법칙은 회월에게 고스란히 적용되었다. 그에게 있어 시급한 것은 꿈과 동경의 낭만주의를 탈출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두운 하늘을 향해 펼쳐던 상상속의 꿈의 나라에서 탈출하여 ‘월광으로 짙 병실’을 부수고 ‘삶으로 짙 현실’ 속에서 자기의 병을 진단, 치유해야 했다.

회월이 유미주의에서 현실주의로 빠져들게 만든 원인을 팔봉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극에서 극으로 전향해 간 이데올로기 문제를 팔봉 한 사람에게서만 찾는다면 그것은 분명 성급한 결론이 될 것이다. 회월 자신도 「화염속에 잇는 서간철(《개벽》 63호), 『문단의 그 시절을 회상한다』(《조선일보》, 1933. 9. 12-15), 「초창기 문단 측면사」 등의 글에서 현실주의에로의 경도에 팔봉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사상의 전향을 행하는 주체는 회월이며 따라서 전향의 중심점에는 회월 자신이 놓여있는 것이다. 유미주의에서 현실주의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팔봉이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보다는 회월 자신의 현실 인식에서 전향의 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낭만적 작품이나 자연주의적 작품에나 그 공통된 요소라는 것은 민족적 애수와 우울이다. 한국문학에 미치는 사조의 대부분이 선진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임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한국문학으로서 새로운 특색을 갖게 되는 것은 이 한국적인 현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까닭이다.²⁴⁾

한국의 작가들이 현실을 떠나서 예술 지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갈수록 한국의 비참한 현실은 작가 앞에 나타나서 점점 커지고 있었다. 주정적

24) 박영희, 「현대 한국문학사」(4)(《사상계》 63호), p. 282

인 예술만으로는 정신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작가들은 또 다시 절망과 비탄 속에서 고민하게 되었다.…… 점점 성장하는 현실세계의 고뇌는 환상이나 미의 창조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았다. 이리하여 예술의 상아탑을 쌓던 작가들은 다시 현실세계로 돌아와서 이 현실의 정체를 살피기 시작한 것이었다.²⁵⁾

회월은 민족의 애수와 우울을 벗어나기 위해 꿈의 예술, 동경의 예술을 선택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정신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思索人 회월이 다시 '고뇌의日夜'로 세월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였으며, 그것은 그의 천성이었다. 정신의 허전함을 뼈 속 깊이 느끼고 있던 차에 팔봉의 등장으로 그 허전함을 메꾸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先後의 문제이긴 하나 이것은 회월의 다음 삶을 고찰하는 데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회월이 만약 전적으로 팔봉의 세뇌교육에 의한 수동적 자세에서 사상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회월은 단연코 팔봉을 앞서는 사회주의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며, 카프의 헤게모니는 단연코 팔봉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철학적 회의를 끊임없이 하던 能動人 회월에게 있어 팔봉은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지나지 않는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팔봉에 의해 감염된 박종화가 '力の 예술'을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전환을 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천성 탓이었다.

재물을 직할줄 아는 사람은 나 아는 사람 중에 氏만한 이를 보지 못했었고 아버지에게 효하고 형제에게 愛하는 데도 특기할 일이 많은 데 그 얹힌 서방님²⁶⁾

월탄이 이렇게 오복을 누린 것은 그가 평생동안 좌우명으로 살아온 성

25) 박영희, 「원대한국문학사」(6), (《사상계》 65호), p. 404

26) 안석영, 「조선문인 인상기」, 앞의 글, p. 80

실, 겸손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성질이 모질지 않고, 부드럽고 너그러웠으며, 조급하지 않고 유연하였으며,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고 장점을 칭찬하였으며, 남의 청을 거절하는 법이 별로 없었다.²⁷⁾

‘암전한 서방’인 월탄은 겸손하여 ‘부드럽고 너그럽으며 조급하지 않고 유연’하였기 때문에, ‘악은 듯 하면서도’, ‘영악한’²⁸⁾ 회월과는 분명히 천성이 달랐다. ‘남보다 나중 시대 사유에 휩쓸려 갔으면서도 거두자리에 앉지 아니치 못할 소질’을 가진 회월의 능동성은 회월만이 가진 특이한 체질이었으며, 그것은 회월을 이데올로기적 사유체로 만드는 힘이기도 하였다.

팔봉이 회월에게 전파해 준 사상은 우선 ‘서푼짜리 문사들의 머리 위에 바늘을 한 개씩’ 꽂는 것이었다.²⁹⁾ 이것은 현실에 직면하여 현실과 싸우려는 행위인 것이다. 그것은 혁명 전야의 러시아 같은 조선에서 〈씨뿌리는 사람〉³⁰⁾이 되는 것이다. 그는 씨뿌리는 사람이 되어 고난의 길을 걷는 〈민중의 지도자〉³¹⁾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어지간히 술이 돌아간 후에 우리는 中西씨에게 一矢를 쏘았다.

“그런데 이것이 취중이 아니라 중요한 것인데 한 말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누군지 이렇게 새삼스럽게 정중한 목소리를 내었다. 잡담하던 사람들도 이야기를 뚝 그치고 보다 中西씨의 얼굴로 시선을 모이 있었다. 中西씨도 얼굴빛이 좀 변한 듯 약간 어색한 말로

“네, 무슨 말씀인지요?”

27) 조용만, 『30년대의 문학예술인들』(범양사, 1988), p. 187

28) 박종화, 앞의 책, p. 165

29) 박종화, 앞의 책, p. 168

30) 김기진, 「나의 회고록」(1), (《세대》14호), p. 173

31) 박종화, 앞의 책, p. 167

“당신의 저서 중에 조선사람을 토인이라고 쓴 데가 있었는데 생각나십니까?”

“네, 아마 그런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하는 말 속에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듯이 우리를 물끄러미 보면서 말하였다.

“아니 조선사람이 어째서 토인이란 말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중에서 또 다른 사람의 성낸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中西씨가 조선을 식민지로 생각하는 까닭이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혁명가의 생각이 아니지요!” (중략)

中西씨는 얼른 무엇을 생각한 듯이

“그것은 확실히 나의 잘못입니다. 요다음 책을 재판할 때는 꼭 정정하겠습니다.”³²⁾

조선인을 토인으로 형상화한 中西伊之助는 당대 일본인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 한계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무산대중의 연대를 주창하며 조선인에 대해 극히 우호적이었던 中西가 조선인을 토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리새인들도 동족인 유대 하층민들을 <땅의 사람들 amhaaretz>로 부르며 경멸하고 불신하였는데, 하물며 한 방울의 피도 나누지 않은 中西가 조선인을 토인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호적인 일본의 지식인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속마음을 조선인들이 얼마나 잘 간파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회월은 그 속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사회주의의 정치적 이론으로 말하면 조선의 무산대중과 일본의 사회주의자

32)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측면사」(4) (《현대문학》 60호), pp. 265-266

의 굳게 단결하여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의 이론이었고 역시 일본사람은 끝끝내 일본사람이었고 조선사람은 끝끝내 조선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그날 밤에 느끼게 하였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조선해방을 위한 무산 계급의 투쟁의지는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의 일본의 사회주의자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 이외에는 그들에게 신뢰하지도 않았고 또 해지지도 않았었다.³³⁾

‘일본사람은 끝끝내 일본사람이고 조선사람을 끝끝내 조선사람’임을 인식한 회월의 역사의 눈은 정확한 것이었다. 조선인을 위해, 특히 <땅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깨달아 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이면 의례히 듣는 무슨 기도 소리’³⁴⁾의 의미가 분명해 졌으며, ‘우리에게 갖은 고통을 주는 이 현실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아니될 그러한 때’³⁵⁾가 왔음을 깨달은 회월이 찾아 든 길은 사회주의였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따진다면 그는 당연히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실천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회월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천성적 호기심이 발동되었던 것이다. 2천여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온 기독교 사상 보다는 러시아 혁명으로 황제와 귀족을 무너뜨린 프롤레타리아의 강력한 힘이 그에게는 훨씬 더 새롭고 구미 당기는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이미 일본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으며, 인접한 중국에도 혁명의 힘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다.

한국사람들은 점잖은 사람들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조용하며, 신앙심이 깊다. 이러한 일반적인 수동성과 평생 동안 줄어들지 않는 고통을 참고 사는 것에 대개 화가 나서 젊은이들은 직접적인 행동을 택했고 고통과 불의에 대한

33)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측면사」(4)(《현대문학》 60호), p. 266

34) 박영희, 「생」(《백조》 1923. 9), p. 108

35) 박영희, 「숙명과 현실」, (《개벽》 65호), p. 85

땀가를 받아내기 위해 직접 행동에 도움이 되는 무기—폭탄, 총, 칼—만을 잡았던 것이다. (중략) 이러한 대담하고 희생적인 정신 때문에 한국사람들은 극동 전역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로 알려져 있다. 왜놈에 대해 테러 행위를 하고 싶으면 중국인은 대개 한국인 중에서 지원자를 물색한다.³⁶⁾

‘한국사람들은 점잖은 사람들’이었으며 ‘평화를 사랑’ 하는 민족이었지만 참기 힘든 고통과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 대담하고 희생적인 사람들로 변해 갔다.

예수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민족주의자인 경우 로마의 압제에 대항해 목숨을 바치며 자신들을 희생하려는 극렬한 민족해방운동자들과 두려워서 극렬한 해방운동에 가담하지 못하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다 지쳐 환상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려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었다.³⁷⁾ 조선에서도 그 상황은 비슷했다. 회월의 경우 격렬한 민족해방운동자가 되어 총·칼을 들고 적에게 대항하거나 매일 아침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는 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왜냐 하면 그는 스스로 민족주의자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리고렛토’의 명창이었으며 ‘진실한 서재의 포로’였던 회월의 상당한 독서량은 그를 사상에 있어 남보다 앞서게 했지만 그것과 과격성은 동일시될 수 없다. 사상의 진보와 과격성은 동전의 것이 아니라 과격성은 오로지 개인의 결단과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월은 총·칼을 들고 적을 물리칠 만큼 과격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 때문이었다. 그는 관념 속의 이론을 가지고 〈조선의 양〉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테러리스트 대신 민족을 위한 문학가의 길을 선택한 그가 아침마다 어머니처럼 기도하며 메시아를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은 해야만 하는 직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여서 불쑥불쑥 솟아 오르는 ‘투사적인 저돌성’³⁸⁾

36) 남웨일즈, 조우화역, 『아리랑』(동녘, 1984), pp. 93-94

37) 한완상, 『저 낮은 곳을 향하여』(전망사, 1978), p. 26

이 그를 앞서 나서도록 충동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월을 희생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은 사회주의 사상이었다.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과격한 테러리스트가 되는 일, 그 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조건이 사회주의에 있었으며, 그 사상은 시대 상황과도 잘 맞아 떨어졌다. 회월이 사회주의에 눈 뜰 무렵에 그의 삶의 근거지였던 《개벽》은 폐간(1925. 9)된다. 카프가 결성(1925. 8. 23)된 직후의 일이다. 《개벽》의 폐간은 회월을 카프맨으로 만드는 동인을 제공해 주었다. 직장없는 회월이 의지할 수 있었던 곳이 카프였으며, 그곳은 그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웅덩샘같은 곳이었다. 카프 1차 검거 사건시 병으로 불구속 검거되어 풀려난 직후인 31년 10월 《조선중앙일보》에 입사할 때까지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지내야 했던 회월에게 힘이 되어 준 곳이 카프였다. 회월은 스스로 숙명을 믿지 않았지만 카프의 결성, 《개벽》의 폐간, 1차검거사건, 《조선중앙일보》에의 입사 등 일련의 사건들이 맞물려 있는 그 곳에서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숙명>에 길들여 지고 있었던 것이다.

회월이 ‘모든 공포와 개인의 생활을 꺾박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는 유일한 비겁한 수단이 숙명’이라고 비판하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찾은 새로운 진리인 사회주의는 과격분자가 될 수 없었던 그를 문학을 통한 사회주의 운동가가 되게 하였다. 현실에 철저히 발을 붙인 채 굳건한 반석을 세우려던 회월에게 메시아 사상은 단연히 배척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메시아」 사상과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생겨서 역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상론한 바와 같지 이 「메시아」 사상은 당시의 생산관계로부터 기원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아직까지도 이 「메시아」 사상에서 방황하는 민중이 잇습으로써 우리는 이 「메시아」 사상을 해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을 민중에게 보이어서 그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꺾치게하여 생활 문제는 생활에서 해결케하며 생산 관계의

38) 이어령, 앞의 책, p. 164

모순은 생산 관계의 개발로써 문제의 기원을 삼지 안으면 안이된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요 땅 위에 사람인 까닭이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하자.³⁹⁾

현실 속에서 현실주의자가 되어 ‘현재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회월에게서 메시아 사상은 ‘민중의 현실성을 摩損케 하는 아편’에 지나지 않았다. 메시아 사상이 팽배해지면 쾌락주의(epicureanism)나 금욕주의(stoicism)가 횡행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극도의 현실 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 사상은 당연히 배격되어야 한다. 이처럼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어 가면서 회월은 카프에 자신의 운명을 걸게 되었던 것이다. 카프를 떠난 회월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회월은 철저한 카프팬이 된 것이다. 그런 회월이 돌연히 카프 탈퇴를 선언하고 나서는데,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4. 관념에서 삶으로 돌아오기

회월이 카프를 탈퇴하게 되는 이유를 밝힌 1차적인 자료는 「최근 문예 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이다. 이 글을 통해서 회월은 카프를 탈퇴할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심경을 고백적으로 밝혀 놓고 있다. 이 글에서 회월은 자신이 정치가가 아니라 예술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다.⁴⁰⁾ 회월은 왜 정치가이기를 거부했을까? 자신이 정치가가 아님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가 정치가는 될 수 없음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 점을 강조하고 나섰을까?

회월은 1929년부터 카프에 관한 지도이론에 약간의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1929년 경의 상황은 어떠했나? 카프의 기관지 《예술운동》이 《무

39) 박영희, 「메시아 사상의 사회경제적 기초」(2), (《조선지광》 84호), p. 40

40) 박영희,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동아일보》, 1934. 1. 2)

산자》로 잡지명을 개제(1929. 5. 13)하면서 카프동경지부가 해산을 고한 뒤(29. 9) 《무산자》파에 의해 카프경성본부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28년 12월 10일 코민테른 제 6차 대회에서 채택한 「조선혁명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결의」, 즉 12월 테제가 조선에서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던 때이다. 12월 테제의 주요 골자는 지식인, 학생 중심의 조선공산당은 노동자, 농민 중심의 불세비키 대중화 작업으로 그 운동의 방향을 전환하되 기존의 민족개량주의자나 기회주의자들의 구태의연함과 우유부단성을 가차없이 지적하여 철저히 불세비키화된 공산당 속으로 그들을 흡수함을 목적삼고 있다.⁴¹⁾ 한 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사회주의 운동과 문학작품은 불세비키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와 비슷하게 김두용의 「정치적 시각에서 본 예술논쟁」(《무산자》, 1929. 5), 권환의 「평범하고 긴급한 문제」(《중외일보》1930. 4. 10-17), 임화의 「조선프로예술의 당면의 중심적 임무」(《중외일보》1930. 8. 16) 등의 논문이 나와 카프의 불세비키화를 가속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 속에서 회월이 ‘지도이론에 약간의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회월의 말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 때의 논객들은 안막, 김효식(남천), 임화, 권환 등 4군이 그 대표였고, 그들의 논문이 발표되자 신진논객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었다. 그러나 팔봉과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 후일에 나는 당시 나의 이처럼 불확실한 태도에 스스로 부끄러웠었다. 내 자신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여 본다면 첫째로 진퇴유곡에 있었던 예술동맹의 책임자로 무기력하다는 등 무엇을 하느냐는 등의 비난을 받으면서 답답하게 있던 때라 이 신진들로 하여금 예술운동의 침체를 타개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그들의 문필행동을 원조하여 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신진들의 새로운 기세와 그 예

41) 「朝鮮革命農民及び労働者の任務に關する決議」(十二月テ—ゼ), (김창순, 김준엽, 『한국공산주의 운동사』3, 청계연구소, 1990), p. 387

리한 감각에 어느 정도의 위압을 느끼게 될 만치 정치적 문학론에는 나는 아주 무기력하게 된 까닭이었을 것이다. 나는 벌써 새로운 시대에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다.⁴²⁾

회월은 이 당시 카프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진들의 새로운 기세와 그 예리한 감각에 어느 정도의 위압을 느끼게 될 만치 정치적 문학론’에는 ‘아주 무기력하게 된 까닭’에 ‘새로운 세대’에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巨頭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직성이 풀리는 천성을 가졌던 회월이 〈새로운 세대〉에 끌려간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회월이 자신의 새로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카프를 탈퇴하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과격한 테러리스트가 될 수 없어 사회주의를 선택하였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연연할 수만 없었다. 그가 택한 사회주의는 민족을 위해 희생양이 되기로 작정한 회월이 선택할 수 있었던 여러 선택물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카프를 결성하고 카프에 입회한다는 것은 ‘직접 일본경찰과 싸운다는 것이며 일본정부와 그 일련의 자본가계급에 대한 대한 반항성을, 투사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⁴³⁾이라고 보는 민족주의자 회월이 〈정치가〉이기를 거부했을 때 그것은 더이상 이름 뿐인 〈나약한〉 테러리스트의 저항 마저도 포기한다는 의미였다.

회월이 카프를 탈퇴하게 되는 표면적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회월이 카프를 탈퇴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카프를 진실한 예술적 집단이 될 수 없을 만치 되어 있는 것을 혁신하지 않으면 예술가로서는 무의미하다’⁴⁴⁾는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며, ‘카프의 문학적 지도는 무

42)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측면사」(7)(《현대문학》 63호), pp. 221-222

43)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측면사」(8)(《현대문학》 64호), p. 227

44) 박영희,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동아일보》, 1934. 1. 8일자)

의미하다'⁴⁵⁾는 것이 다른 하나의 이유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문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타당한 것이다. 카프가 결성될 당시 회월은 <문학을 통한 투쟁>을 기치로 내세워 그 투쟁을 용이케 하기 위해 사회주의라는 도구를 끌어들었던 것인데 회월이 카프를 탈퇴할 즈음에는 주객이 전도되어 카프는 투쟁성만 강조할 뿐 문학이란 이름을 소중히 하지 않았다. <적당한 투쟁성>은 회월에게도 용인될 수 있었지만 과격한 투쟁은 회월의 힘에는 벅찬 것이었다. 이런 표면적 이유에다 그의 묘한 천성이 또 작용한 것이다. <새로움 콤플렉스>는 여기서도 여지없이 자기의 가치를 발하고 있는 것이었다.

최근의 경향은 점차 이러한 비예술적 분위기를 탈출하려는 것이다. 『리터래투르나야 · 짜세타』의 소론과 같이 정당한 예술적 분위기를 만들어 작가를 위하여 제공하려는 경향이 다소 보인다. 자기 비판과 구체적 제사가 없고 암시적으로 혹은 측면적으로 논하나 그 경향은 문학사적 견지에서 특수적 개별적 사업을 성취하려는 노력이 보인다.(중략)

더욱이 이기영씨의 소설은 난삽한 古殻을 벗으려 하며 제한과 구속에서 탈출하여 참말로의 기술있는 창작가 길로 나아가는 것이 보인다. 씨의 소설에 대하여 임화씨의 所論은 다소 정실에 기울어지나 그다지 무리는 아니다.

이것은 한가지 최근 문예경향의 한 새로운 발전이면서도, 그실 그들에게 '멜랑코리'가 아니면 아니된다.

그들이 돌이켜서 '카프'를 돌아봄에 한해서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들은 이중진리에서 주저한다.⁴⁶⁾

사회 분위기상 새로운 조류가 흐르고 있음을 회월을 감지하였다. 카프의 '이중진리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카프에 대해 불쌍한 눈길을 보내면서 '예술의 전당'에서

45) 박영희, 위의 글(《동아일보》1. 9일자)

46) 박영희, 위의 글(《동아일보》1. 11일자)

‘창작의 사원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 회월은 〈고난의 순례〉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회월을 통해 우리는 위장된 ‘순수한 문학인’의 현실 감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정치가는 될 수 없었다. 철저한 이념에 입각한 투쟁가는 더우기 될 수 없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는 회월의 천성이 여지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회월이 카프를 탈퇴하게 되는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회월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제1차 카프 검거사건으로 회월이 종로서에 구속된 것은 1931년 6월 15일이었으며 10월 5일에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이 구속 사건은 회월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였다.

그전 「캅푸」사건에서는 나는 삼개월 동안 고문에 몸이 쇠약하여져서 심장 각기로 쓰러지니 사건이 끝날 때까지 적십자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감옥의 내용을 잘 몰랐다.⁴⁷⁾

종로경찰서에 구속된 회월은 이듬해인 1932년 봄 감남천을 제외한 피구금자 전원과 함께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나왔는데 그동안 심한 고문을 받았으며 건강이 악화되어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일을 요했다. (가족들의 증언)⁴⁸⁾

금일 송국된 17명중 권경환과 박영희는 병으로 그간 석방되어 치료중으로 불구속으로 송국되었고⁴⁹⁾

위 세 인용문을 통해 박영희가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것, 그 때문에 병

47) 박영희, 「독방」(《현대문학》45호), p. 32

48) 이어령, 앞의 책, p. 153. 이어령은 회월이 이듬해 봄에 풀려나온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회월이 31년 10월에 중앙일보에 입사한 사실로 보아 그는 최소한 입사 이전에 풀려 나왔다. 《조선일보》 31년 10월 6일자 박영희가 병으로 석방되었음을 분명히 해 주고 있다.

49) 《조선일보》 1931년 10월 6일자

원에 입원하였다는 것, 그 병명은 심장각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월에게 가해진 고문은 회월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였다. 이 때부터 회월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의 머리 속에는 고문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해 있었다. 거기에 보태어 3년을 잃은 다음에 얻은 무녀독남인 회월에게 가해지는 부모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회월 자신만의 몫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때의 심정을 회월은 다음과 같이 밝혀 놓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카프의 작가들은 두 가지의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는 문학상으로 작가가 가져야 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 그 진로가 막히게 된 것이고 둘째로는 공산당원도 아닌 사람이 당원으로 취급되어서 이유도 모르게 강포되어야 할 그것이었다. (중략)

나는 생각다 못하여 임군을 방문하였다. 사실로 카프원들은 거의 다 해산하여 버렸었다. 카프사건 이후 더러는 동경으로 가서 학업을 계속하였고 혹은 각각 시골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서울 있는 작가들은 카프에 대하여 아주 관심이 없었으므로 카프에 관한 일을 논의할 사람은 임군 밖에 없었다.

나는 임군을 만나 카프의 정식해체를 권고하였다.(중략) 그러나 임군은 나의 말에 반대하였다. 임군의 의향을 알게 된 나는 할 수 없이 개인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신간회해소 때에도 나 자신이 해소에 찬성도 아니하면서 휩쓸려 그 와중에 들어가 고배를 맞본 까닭에 이번에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려고 하였다. 이번에도 조금 부주의하면 공산당원도 아니면서 애매하게 그물에 걸리게 될른지도 모르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딱하게 된 일은 당시 카프는 사실상 붕괴상태에 있었으니 탈퇴원서를 제출할 데가 없었다. 그것을 수리할 사람도 없었다.⁵⁰⁾

회월은 어떤 이유에서건 강포되어 가는 것이 두려웠다. ‘애매하게 그물

50)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측면사」(최종회)(《현대문학》 65호), pp. 238-239

에 걸리게' 되어 감옥에 갇힌 후 받게 될 고문은 회월에게는 건디지 못할 노릇이었다. 팔봉처럼 육척장신에 루바쉬카를 걸쳐 폼 잡힐 체격도 안닌 '증기도 되지 않는'⁵¹⁾ 회월이 그 고문을 감당하기에는 힘겨운 것이었다. 고문의 깊은 상흔을 간직하고 있는 회월이 더욱 더 거세져 가는 일본의 탄압을 벗어나기 위해 카프를 탈퇴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가 다시 감옥에 가는 것은 꿈에서조차 생각하기 싫은 악몽이었음을 다음의 인용 구문은 분명히 밝혀 주고있다..

「윤주큐고! 아니 그런데 웬 잠꼬대냐 말야. 온통 악을 쓰고 야단이니 주의해!」

그는 초저녁에 들어왔던 조선사람의 간수이었다.

「아,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몸이 쇠약하면 헛소리를 하기 쉬워요. 주의하겠읍니다.」

나는 잠깐 동안에 무서운 꿈을 꾸었던 것이다. 나는 잠시 검사와 싸웠다. 검사는 나를 심문하는데 내 말은 잘 듣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여러가지 무거운 죄목을 느러 놓으려는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별떡 일서나서

「이놈! 내가 검사냐. 네 마음대로 나를 감옥으로 보내려고안된다. 안간다. 이놈! 이 개만도 못한 놈!」

하고 나는 검사의 역살을 훔쳐쥐고 발길로 찼다.눈만 감으면 흉악한 꿈이 많았고 산란하였다.⁵²⁾

회월은 풀려나온 뒤 32년 간부를 사임하고 33년 10월 7일 카프를 탈퇴한 후 34년 새해 벽두에 전향 선언을 해버린다. 앞서 지적한 카프 탈퇴의 두 가지 이유는 다분히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의 삶이었다. 삶, 민족, 사상 이 셋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때 그는 분명히 삶을 선택했으며 이 때부터 그에겐 <목숨 부지>가 가

51) 안석주, 앞의 글

52) 박영희, 「독방」(《현대문학》45호), p. 29

장 소중히 해야 할 덕목이 되었다. 민족과 사상은 선택조건이었지만 삶은 그에게 필수조건이었던 것이다. 회월이 말하는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예술 자신’이라는 문구도 <버린 것은 이데올로기요 얻은 것은 삶>이라고 표현될 때 그 의미는 더 명확해 질 것이다.

팔봉이 ‘분홍빛 문학에의 길’⁵³⁾로 나가려는 회월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그것은 팔봉의 한계였다. 죽마고우처럼 지내던 팔봉이었지만 회월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다. 이미 회월은 <분홍빛 문학>이건 <친일문학>이건 가릴 계제가 아니었다. 그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 보이기만 하면 언제든 그것을 위해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 회월을 다시 잡아 가둔 일본 경찰들의 행위는 신경과민 증세 그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잡혀 들어간 회월도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이것을 가리켜 회월의 숙명이라 표현하지 않는다면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5. 착한 아들 되기와 친일하기

회월이 카프 창립 당시에 가졌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는 제1차 카프검거사건을 계기로 희석되고 말았다. 회월은 자기를 지탱해줄 새로운 사상에 목말라 했다. 카프붕괴 후 가져온 심각한 정신 병리 현상속에서 파괴된 삶과 문학을 위해 새로운 시대 정신을 파악하는 것이 회월에게는 급선무였다. 그러한 작업은 삶과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필사적이었으며 생활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고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범위는 한정적이었다.

카프 탈퇴라는 폭탄 선언을 34년 새해 벽두에 발표하여 다른 많은 카프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회월은 <신건설사사건>으로 그 해 12월에 구금되어 이듬해 1월 25일 전주감옥소로 이송되었다.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지극껏 행위가 ‘옳은 것인가 옳지

53) 김기진, 「문예시평」(《동아일보》1934. 2. 4일자)

않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결행한 카프의 탈퇴도 감옥에 가야 될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감옥에 갇힌 후 회월은 빠른 속도로 기독교 사상에 빠져들게 된다. 그의 어머니가 성경과 함께 적어 보내 준 사도행전 12장 5절, 16장 19절 등의 성경 구절들은 고난 받는 종들이 장차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그에게 심어 준다. 특히 사도행전의 베드로 옥중기나 바울과 실라의 옥중기는 착한 일을 하다 감옥에 갇힌 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월의 가슴을 더욱 더 파고 든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 회월이 깨달은 것은 착하고 옳은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일종의 보상심리이다. 회월에게 감옥은 더 이상 지옥의 곳이 아니고 그의 정신을 굳건히 해 주는 <정신의 집>⁵⁴⁾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회월은 왜 그렇게 빨리 기독교 사상으로 빠져 들어 간 것일까?

카프를 탈퇴해 버린 회월이 다시 사회주의 문학론으로 회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물철학이나 소위 맑스의 자본론에 대하여는 거의 칠팔년의 세월을 허비하면서 대개는 읽고 연구하여 온 회월이 내린 결론은 영원한 혁명법칙에 의한 행동과 신념의 비대화로 정신의 빈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결심을 이곳에서 말한다면 유물철학이나 소위 맑스의 자본론에 대하여는 거진 칠팔년의 세월을 허비하면서 나오서는 대개는 읽고 연구하여 본 것이다.……결국 이러한 노력은 경제학을 전문하려는 것이 아니라 굳은 혁명적 이론을 배우며 그 신념에 만족을 얻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와 싸우는 젊은 혁명가의 철석과 같은 신념을 넣어 주기 위하여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은 전부 혁명의 학문일 뿐 사람의 정신생활에 대해서는 듣고 볼 만한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유물론에서 나의 세계를 훨씬 넓

54) 박영희, 「독방」(《현대문학》48호), p. 18

히며 유물론만의 구속을 받지 않기 위하여 정신적인 학문을 배워보려고 노력하던 때라 마침 몸이 옥중에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이에 관한 서적을 전부 읽어 보리라는 욕망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종교에 관한 것은 커다란 부분이었다.⁵⁵⁾

혁명의 이론에 지배받던 회월이 〈정신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고 싶어 안착한 곳이 〈기독의 집〉이었다. 기독의 정신은 사랑이었으며 그 연장선상에 어머니가 계셨던 것이다. 결국 회월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기독은 동등한 대상이었으며, 그 대상을 위해 회월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착하고 옳은 일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그 순간부터 회월은 끊임없이 〈착한 사람되기〉에 몰두하는 것이다. 새로운 깨달음은 그에게 힘을 주었으며 그 힘은 회월을 용기의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보인다. ‘착한 사람되기’와 ‘용기있는 사람되기’의 두 가지 목표는 회월이 1년여의 감옥 생활을 통하여 도달한 정신세계의 본령이었다.

몸은 옥중에 가쳤으나 내 마음 가들리 없어
꿈마다 동지를 만나 새 일을 의론하니
하늘아래 넓은 땅에 날 막을 자 누구던가.⁵⁶⁾

용기 백배한 회월에게 대적할 자는 없어 보인다. 꿈마다 만나는 동지들과 나누는 의논은 〈조선 독립의 희생양이 되기 위한 방법〉일 것이고 ‘막을 자’란 일제를 지칭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문학사에 나타난 지식인의 대표적인 허위의식을 엿볼 수 있다. 서재의 포로였던 회월이 〈감옥의 포로〉가 된 것은 공간의 이동이라는 의미 이외에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소중한 체험이 될 수 있다. 김

55) 박영희, 「독방」(《현대문학》 50호), pp. 205-206

56) 박영희, 「독방」(《현대문학》 55호), p. 189

남천이 임화의〈물논쟁〉에 끌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감옥에의 체험〉이었다. ‘서울을 백 날 이야기하여도 한 번 다녀 오는 것보다 못하다’는 논리가 똑똑하였지만 감옥을 다녀오지 못한 임화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하물며 1차 검거시에는 모진 고문을 당하였고, 2차 검거시에는 1년여를 감옥에서 보낸 그 체험은 회월을 얼마든지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줄 수 있었다. 회월 자신도 어쩌면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지도 모른다.

그러나 회월이 ‘동지를 만나 새 일을 의논한 것’은 〈꿈 속〉에서만 가능했을 뿐이지 현실 속에서는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미 ‘세상의 명리와 욕심을 아낌없이 내어 버리고 녹쓴마음을 닦아’⁵⁷⁾ 그저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 만족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보내 준 성경 구절을 통해 베드로의 고난을 보고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본 회월은 그 자신을 고난의 종으로 생각하였으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카프를 탈퇴한 직후부터 그는 더 이상 조선을 위한 고난의 종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지배 하에 놓여 있었으며, 그 어머니는 회월이 있어야만 존재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분이었다. 회월이 극도의 빈곤을 느낀 정신 세계의 빈 곳을 채워 주었던 분이 어머니였으며, 그 어머니는 사랑 그 자체였다. 회월이 새로이 다진 투쟁의지는 꿈이었으며, 그의 비어 있던 정신공간이 채워지는 것에 비례하여 그는 어머니를 위해 더욱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회월이 보여 준 〈용기있는 자〉의 모습은 헛된 것이었으며, 감옥에 있는 동안 회월은 어머니를 위한 착한 아들이 되어 갈 준비를 했을 뿐이다.

회월은 카프를 탈퇴하고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와 〈어떻게 착한 아들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기로 그의 일생을 보내야 했다. 회월이 걸은 친일의 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살기 위해서, 착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회월은 무엇이든 해야 했으며, 그것이 감옥

57) 박영희, 「독방」(《현대문학》 55호), p. 189

에서의 치열한 자기 반성 후에 다다른 회월의 원초적 본능에 가까운 정신 세계였다. 한국문학사와 지성사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회월의 정신 편력을 더듬어 온 지금까지의 결론에 다다르면 회월에게 친일을 묻는 행위는 어리석은 짓인지도 모른다. 앞서 지적한 전향의 의미 중 사회 복귀는 회월에게는 절대적 과제였으며 천황을 위한 충실한 신민이 되는 일은 부수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회월은 삶을 위해 사회 복귀를 반드시 해야 했으며 따라서 그의 전향은 관념적인 것도, 직선적인 성격 탓도 아닌 삶 그 자체를 위한 필연적 귀결이었으며, 완전한 전향 그것이었다.

우리가 하라고 하니까 호적의 이름을 개명할 수 밖에 없다 해도 글을 쓰는 데까지 <요시무라고오도오>(芳村杳道)라고 써야하느냐고 했더니 회월은 한참 생각을 하고 나서 「그야 누가 오래 동안 쓰던 자기 필명을 버리고 싶겠오, 하지만 이름 하나 고집하다가 큰 오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오. 이런 판국에……」하고 대답을 해서 우리는 다시 더 말은 계속하지 않았다.⁵⁸⁾

큰 오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고 있는 자에게 민족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며 투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결례인지도 모른다.

폐쇄된 사회, 특히 개인의 자유가 저당잡힌 사회에서는 ‘때때로 가장 온화하고 조용한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개인 차원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가리켜 소영웅주의라 한다. 그러나 소영웅주의는 하나의 치기에 지나지 않으며, 그 종말은 대개 헤프닝으로 끝나기 쉽다. 소영웅의 측면에서 본다면 회월은 성경속의 가룟 유다와 상당히 닮아있다. 회월과 유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조국이 다른 나라에 의해 짓밟히고 있었다는 점, 둘 다 시대를 달리한 예수의 제자라는 점, 그리고 하나는 민족을, 다른 하나는 스승을 배반한 차이점은 있지만 둘 다 배반자라는 점이다.

58) 백철, 『문학자사전』(후편)(박영사, 1976), pp. 20-21

조선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자이기를 자처했을 때 회월은 분명히 고난의 종이기를, 조국을 위한 희생양이 되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서재의 포로였던 책상물림의 회월은 고난의 뒤에 따르는 〈십자가의 고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했다라도 애써 그것을 외면해 버렸던 것이다. 회월이 ‘비에의 성사’인 〈정신의 집〉에서 발견한 유다의 모습은 고통의 모습이 아니라 고통받기 전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유다는 예수를 팔고 난 뒤 은 30냥을 손에 쥐었으나 그 대신 목숨을 댓가로 내놓았다. 회월은 민족과 이데올로기를 팔아 자신의 목숨을 손에 쥐었으나 그의 이름을 일본에 내놓아야 했다. 유다는 민족을 위해 예수를 팔았지만⁵⁹⁾ 회월은 자신을 위해 민족을 팔았다. 유다는 대의명분이 뚜렷했지만 스승을 판 양심의 가책으로 자결하였고, 회월은 대의명분이 분명하지도 않았지만 목숨을 잘 보존하였다. 유다와 회월의 차이는 분명히 여기에 있었다. 이것이 유다가 되려다 만 사이비 유다 회월의 한계점이며 한국 지성사의 한 모퉁이인 것이다.

〈사이비 유다 회월〉이 〈정신의 집〉에서 행한 자기 반성 이후에 걸어진 문학의 길은 이미 예정된 수순에 따른 〈순탄한 길〉이었다. 팔봉이 우려했던 〈분홍빛 문학에로의 길〉은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찾기 위한 모색 다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도 없다. 「반려」(36. 8)는 출옥 후의 문학관을 점치게 하는 진수에 해당된다. 3류 통속소설에 지나지 않는 「반려」는 ‘연장으로서의 눈’이 무디어진 회월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그가 번쩍이는 칼날을 휘둘러 수 있었던 곳은 비평의 공간이었으며 그것은 카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카프를 떠난 회월은 물없이 물고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가 소설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59) 유다는 예수의 제자이면서 열심당원, 즉 독립군이였다. 그가 예수를 판 근본적인 이유는 조국의 독립이였다.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된다면 그를 따르던 많은 부리들이 예수를 구하기 위해 로마 군병들에게 대항해 민중봉기를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모험이 뒤따랐다. 회월은 소설이랄 것도 없는 콩트같은 소설 「춘몽」(29. 3. 1)을 끝으로 「반려」를 써내던 36년 8월까지 근 7년 6개월여를 소설과는 떠나 있었다. 그는 생애 동안 써낸 평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여편을 이 기간 동안에 써 내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평론에 의해 화석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회월에게 더 이상 날카로움이나 ‘반역 정신’은 없었으며 그 대신 분홍빛 3류 소설을 낳을 수 있는 ‘분홍빛 정신’이 그의 정신 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회월시초』를 37년 5월에 발간하는 것도 분홍빛 문학의 연장선상에서 설명 가능한 일이다.

그는 내개는 선배, 같은 평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와 나 사이는 가까웠던 편이어서 이때(국민총연맹과 문인보국회의 일을 하고 있을 때:필자)의 그의 심정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춘원도 그렇지만 회월도 성격이 퍽 약하고 생애 대한 애착 같은 것 때문에 미리부터 겁을 집어 먹는 경향이 있었다. 자연 정세에 대한 근시안적인 도취도 되기 쉬웠다. 회월이 종군을 떠나기 전날 나와 둘이서 점심을 부민관(지금의 국회의사당)식당에서 할 때에 그는 춘원이 내게 하던 이야기와 꼭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다.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할 바에는 먼저해서 생색을 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조선사람의 특권을 얻어와야 한다고 했다.⁶⁰⁾

위의 글을 통해 회월이 천성을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우선은 생색 내기 좋아하다는 것—박종화투로 하면 거두(巨頭)가 되어야 한다는 것—다음으로 생애 대한 애착 때문에 겁을 집어 먹는 용기없는 자라는 것, 마지막으로 근시안적인 도취에 빠져 앞날을 내다볼 줄 모르는 지극히 현실 중심주의자라는 것이 그것이다. 생색 내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나 가룟 유다의 용기는 가지지 못했던 〈사이비 유다〉 회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되 굴복하며 살아가는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이다.

60) 백철, 『문학자서전』(후편)(박영사, 1976), p. 58

박영희의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실천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은 〈사랑 만들기〉 혹은 〈사랑 베풀기〉로 나타났다. 이 사랑 베풀기의 대상은 조선인에게 국한되어서는 안되는 pan Korea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그 속에는 조선인도 일본인도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회월이 일본인에게 베푸는 친일 행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한 표현 수단으로 포장 가능하였던 것이다. 근사한적인 눈을 가진 회월 자신에게는 충분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가설이다. 회월이 복잡한 현실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짐으로써 그의 허위의식을 여지없이 드러내 주고는 있지만 회월 자신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득 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이것마저도 가지지 않았다면 그를 지탱시켜 줄 힘은 모두 소멸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책임 있는 지성인의 행동은 사회의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의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회월 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을 풍미했던 최남선, 이광수, 임화 등의 경우에도 그러한 도덕률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모랄을 문제삼을 때 이들 친일문학인들은 한국의 정신사를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삼봉’이 ‘영자’의 장례비로 10원을 지출하고 난 다음 ‘그 돈을 쓸만치 대담하고 관대하였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마음 속으로 자랑’⁶¹⁾하고 있는 「포도원에서」나, ‘눈 앞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로 할 수 없는 일’⁶²⁾이라 강변하고 있는 「명암」, ‘위대한 작품의 정신을 부흥코자’⁶³⁾ 쓴 「문학의 이론과 실제」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랄은 회월이 당시에 가질 수 있었던 최대한의 양심이었고, 유토피아를 향한 열정이었다. 그의 이런 〈순수함〉이 순수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61) 박영희, 「포도원에서」(《조선문학》 10호, 36. 10), p. 17

62) 박영희, 「명암」(《문장》 12호, 40. 1), p. 36

63) 박영희, 「문학의 이론과 실제」(일월사, 1947), p. 19

있을까? 앞서 지적한 여러 이유들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도 가능하나 다음의 글은 그 해답을 명확히 제시해 준다.

이것(전쟁문학:인용자)은 위정자의 독특한 선전술도 결코 아니다. 위정자나 국민이나 일치단결된 대중적인 한 과정이다. 그것은 정책의 예술화가 아니라 일본정신의 예술화와 문학화인 것이다. 이 일본정신은 세계정신의 충추를 형성하면서 있으니 이 정신 위에서 창작되는 문학적 작품은 세계문학의 이상을 만들어 낼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쟁문학은 그 실은 일본정신의 영역에 불과한 것이다. 급변 지나사변은 전투를 위한 전투가 아니다.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위한 일본정신의 발로다. 즉 동양정신의 선구라 할 만한 이 일본정신은 내가 이곳에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한가지 역설하려는 것은, 이 일본정신 속에는 옛부터 조선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도덕과 정의감이나, 또는 지나인들이 생각하던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광범하고 또 광범한 그 정신이다.

그러한 까닭에 이 정신을 기초로 한 전쟁은 말할 것도 없이 聖戰임에 틀림 없다.⁶⁴⁾

전향 혹은 전향문학을 이야기 할 때 그 중심적인 주제는 自我의 문제이다. 동지나 혹은 자신의 이상을 배반하였다는 자각은 패배감으로 변하였고, 자기의 비겁함 또는 암흑을 통절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이상주의적인 순결한 청년으로 되었다.⁶⁵⁾ <이상주의적인 순결한 청년>이 지향해간 목적지는 ①보통시민으로서의 삶에의 복귀 ②일본정신(천황주의, 國體)에 입각한 충실한 신민되기 등의 들임을 이미 말한 바 있다. 물론 일본인의 전향에 대해 문제 삼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회월의 경우 보통시민이 되어 삶에 복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었으나 일본정신에 입각한 충실한 신민되기는 당연한 주저가 있었을 것이다.

64) 박영희, 「전쟁과 조선문학」(《인문평론》창간호), p. 40

65) 三好行雄 외 편, 『日本文學全史』(6)－現代－(學燈社, 平成2년), p. 125

그러나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는 일본 정신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은 천황의 충실한 신민이 됨을 말하는 것임을 짐작할 때 회월은 완벽하게 일본인식 전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회월 최대의 장점인 동시에 한국문학사의 최대의 부끄러움이다. ‘우리 앞에 전개된 새로운 사실에, 예민한 관찰로서 이해’⁶⁶⁾한 회월의 시대정신은 조국(일본)의 승리를 예찬하는 『전선기행』(박문서관, 1939)이라는 기행문을 남음으로써 火野葦衛의 「보리와 병정」이라는 전선기행문과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회월은 거두로서의 면모를 또 한 번 여지없이 보여주게 된다.

6. 속죄양 되기와 문학사 기술-결론을 대신하여

민족운동자와 공산주의자들을 분열시켜 일본의 황민화정책에 가담시키기 위해 공포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36. 12)은 회월의 운신의 폭을 더욱 더 좁게 만들었다. 용기없는 생활인 회월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걸어간 친일의 길은 38년 6월 20일부터 22일에 걸쳐 동경에서 벌어진 시국대응전국위원회(일명 전향자대회)에 權忠一과 참가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회월은 경성지부간사로 축탁되며 39년 7월 15일 경성부내 4개 분회 중 제1 분회의 분회장이 된다. 39년 4월 17일부터 5월 13일까지 김동인, 임학수 등과 황군위문작가단에 가담하여 북경 등 중국 각지를 다니며 일본군을 위문하는 위문여행을 하게 되며, 그 해 10월에 보고서인 『전선기행』을 수필로 엮어 낸다. 1939년 10월 29일에 결성된 조선문인협회에서 간사로 피선되며, 41년 8월 12일자로 간사장이 된다. 1941년 1월에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위원이 되며, 그 해 12월에 황도학회 발기인 48명 중 하나가 되며 8명의 이사 가운데 1인으로 피선된다. 1941년 8월에 삼천리사 주최의 臨戰對策協議會에 참가하여 조선임전보국관의 평의원으로

66) 박영희, 「전쟁과 조선문학」, p. 41

선임되었다. 1942년 12월 4일 동경에서 개최된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이광수 등과 함께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43년 4월 17일 결성된 조선문인보국회의 총무국장에 피선된 뒤 45년 8월 1일 임원 개편에 따라 평론부 회장에 피선된다.⁶⁷⁾

회원의 화려한 친일 편력은 도둑 같이 찾아온 해방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미지의 운명을 다만 목숨만 부지한 채 기다리고 있었던 회원에게는 천만 뜻밖의 일이었다. ‘하늘에서 내려준 해방’, ‘도둑같이 온 해방’⁶⁸⁾을 회원이 알 턱이 없었다. 하기사 그 누구도 몰랐던 해방이었다.

그러나 회원에게 해방은 분명 남다른 것이었다. 해방을 맞은 회원이 행한 행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속죄양 되기>이다. 그 중 하나는 강원도 춘천의 어느 산가(山家)로 칩거하여 「초창기의 문단측면사」와 「현대조선문학사」를 집필하는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해방 후 <보도연맹> 사무국장이 되어 사상 전향 또는 좌익 사상자들의 전향을 위해 활동하는 일이나 후자는 외부의 눈가림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회원의 <순수한 속죄양 의식>은 단연코 전자의 행위들로 집약된다. 이러한 일들은 해방이 되고 다소 시간이 지난 뒤의 일들이지만 <사이비 유다>, <용기없는 허위의식자> 회원의 <거두 콤플렉스>는 해방 직후에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그 날, 그러니까 16일 오후 네시경 신문사로 내게 전화가 걸려왔다. 팔봉으로부터였다. 껍 흥분해서 떨리다시피하는 목소리였다. 곧 만나자는 것이었다. 다들 모여서 새로운 문학운동의 깃발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었다. 「그 지금 어디서 전화를 하시나요?」하고 물었더니 「지금 문인보국회자리에서 회원과 같이 전황 걸고 있는데 문인보국회라는 기관은 어제 오후에 벌써 폐어버리고 그대신 이젠 새로운 우리 기관을 갈아붙이고 새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오?」하고 팔봉은 프롤레타리아 문학 때에 많이 쓰던 「새로운 술은 새로운 푸대에 담아야 한다.」⁶⁹⁾는 말을 붙였다.

67) 이어령, 앞의 책, p. 154

68)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함석헌 전집』1, 한길사, 1985), pp. 268-271

해방을 맞은 불과 몇 시간 뒤에 떼어낸 <문인보국회> 간판과 함께 회월과 팔봉의 친일 행각도 땅 속으로 묻힌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답아야 한다고 강변하는 회월이나 팔봉은 영락없는 친구다. ‘새롭다’는 단어의 의미가 이처럼 가볍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회월과 팔봉의 임기응변은 과히 천재적이다. 해방이 된 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회월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의 30년 동안의 문단생활은 현대조선 역사의 운명과 더불어 실로 기구하였다. 일정시대의 말기에는 나는 지필을 내어 던진 채 7, 8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말았다. 나는 이렇게 무료히 지나가는 동안 자기의 길을 문학사를 초하려는 데서 발견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틈틈이 자료도 정리도 하여 보았으나 이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형로에 내 자신이 있게 됨을 알게 될 때 나는 하는 수 없이 이것조차 중지하고 말았다가 8·15를 당하게 되자 자유와 여가를 살리기 위하여 또 다시 펜을 잡았다.

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조선문학은 당연히 과거의 우울과 구속에서 뛰어나와 자유와 희망 속에서 조선민족의 심원의 문학을 창조할 수 있게된 것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과거 40년 동안의 조선문학을 정당히 이해하며 또 걸어진 자취에서 현재와 미래의 고귀한 전통을 만들기 위하여 현대조선문학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새로이 내게 부여된 자유와 희망 가운데서 나의 조선현대문학사를 기초할 의욕은 더욱 굳어졌다.⁷⁰⁾

기구한 30년 현대조선문학의 체험적 대리인이랄 수 있는 회월이 <조선현대문학사>를 집필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조선문학의 현재와 미래의 고귀한 전통>을 만들기 위한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시대가 <새로이 부여해 준 자유와 희망>은 회월에게는 면죄부와 같은 것이며, 그 면죄부

69) 백철, 앞의 책, p. 294

70) 박영희, 「현대조선문학사」 머리말(김윤식, 『박영희연구』), pp. 231-232 재인용)7

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조선현대문학사〉였으니 그 속에는 다분히 〈속죄양 의식〉이 작용하고 있었음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면죄부는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월의 〈초창기의 문단측면사〉나 〈현대조선문학사〉에는 단 한 구절의 친일 행위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에 당면한 조선작가들은 이 가혹을 극(極)하여 가는 일본제국주의의 철제(鐵蹄) 밑에서 오죽 공포와 전율(戰慄) 속에서 장차 닥쳐올 미지의 운명을 기다릴 뿐이었다.’⁷¹⁾라고 끝을 맺은 「조선현대문학사」의 집필 동기는 객관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학들에게는 만족한 것이 될 수는 없다.

‘일본제국주의의 철제 밑에서 미래의 운명을 기다릴 뿐이었다’는 한 마디 말로 훼손된 도덕성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회월의 친일은 시대적 상황성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적 모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의 〈속죄양 의식〉에도 불구하고 온당한 면죄부는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책임있는 지식인의 모랄과 보통 사람의 그것은 엄연히 다르다. 전자의 것은 곧바로 역사의 표면에 드러나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후자의 도덕성은 역사의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사라지거나, 설령 드러난다 할 지라도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표면화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곧장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자의 도덕성은 후자의 도덕성 보다 훨씬 더 영향의 진폭이 클 수 밖에 없으며, 그 큰 진폭 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카프의 맹장이었을 때에는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자로, 1·2차 검거사건 후에는 용기없는 지식인, 사이비 가룟 유다, 목숨부지를 위한 착한 사람되기의 모습을 보여주며 완벽한 전향을 했던 회월, 그의 인생 편력은 한국 근대문학의 전위에 서서 그것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것이

71) 박영희, 「현대조선문학사」(김윤식, 『박영희연구』), p. 315

다. 그의 삶이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났지만 긍·부정을 차치하고 그 모든 것이 제대로 평가받는 자리에서 회월이 속죄양 의식을 가지고 집필한 「조선현대문학사」는 완성될 것이다. 그 일은 오로지 후학들의 몫인 것이다.

기구했던 그의 30여년 문단 생활은 남북이라는 외부의 강제된 힘에 의해 종지부를 찍어야 했지만 '피난 가라고 만원 노자돈을 주었는데 용산에서 끌려갔어……' ⁷²⁾라고 말하며 애타게 그를 기다리던 노부(老父)의 한마디 회고에 그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 자신도 어찌할 수 없었던 회월의 가슴에 전해져 기다림의 미학으로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 고 문 헌

- 김기진, 「나의 회고록」, 《세대》 14~32호
 김기진, 「문예시평」, 《동아일보》 1934. 1. 27~2. 6
 김기진, 「카뎀학과 회월의 인간」-증언적 자료로써-, 홍정선 편, 『김팔봉문학전집』Ⅱ, 문학과지성사, 1988
 김윤식, 『박영회연구』, 열음사, 1989
 김윤식, 『임화연구』, 문학과지성사, 1989
 김윤식, 『학군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85
 김창순, 김준엽,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청계연구소, 1990
 님웨일즈(조우화역), 『아리랑』, 동녘, 1984
 박영회, 「고뇌의 일야」, 《삼천리문학》, 1938. 4
 박영회, 「독방」, 《현대문학》 45~55호
 박영회, 「메시아 사상의 사회경제적 기초」, 《조선지광》 83~84호
 박영회, 「문학의 이론과 실제」, 일월사, 1947
 박영회, 「생」, 《백조》, 1923. 9

72) 이어령, 앞의 책, p. 163

- 박영희, 「숙명과 현실」, 《개벽》, 1926. 2
- 박영희, 「문단의 그시절을 회상한다.」 《조선일보》, 1933. 9. 13~15
- 박영희, 「전쟁과 조선문학」, 《인문평론》 창간호
-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 측면사」, 《현대문학》 56~65호
- 박영희, 「최근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 《동아일보》, 1934. 1. 2~14
- 박영희, 「현대조선문학사」 《사상계》, 1958. 4~1959. 3
- 박종화, 『청태집』, 영창서관, 1942
- 백 철, 『문학자서전』, 박영사, 1976
- 山田清三郎, 『プロレタリア文學史』, 理論社, 1979
- 三好行 外, 『日本文學全史』, 學燈社, 平成2年
- 안석영, 「조선문인인상기」, 《백광》, 1937. 5
- 안석주, 「두분불출의 회월 박영희씨」 《조선일보》, 1933. 1. 31
- 이선희, 「조선작가군상」(속), 《조광》, 1936. 5
- 이어령, 『한국작가전기연구』(上), 동화출판공사
- 林房雄, 「韓向に就いて」(《문학계》)
- 조용만, 『30년대의 문학예술인들』, 범양사, 1988
- 한완상,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전망사, 1978
-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한길사, 1985
- 기타 박영희 작품 및 평론 다수